

로이·해로드의 生涯와 學問的 業績

朴 宇 熙*

……………〈目 次〉……………	
I. 生 涯	V. 動學理論의 應用과 經濟政策
II. 學術活動의 幅	VI. 經濟學의 方法論
III. 初期의 業績	VII. 結 言
IV. 動態經濟學의 展開	

I. 生 涯⁽¹⁾

1978年 3月, 우리는 賢明한 經濟學者를 한 분 잃었다. 經濟學의 큰 章을 열었고 우리에게 예지를 불러 일으켰던 로이·해로드卿(Sir Roy Forbes Harrod)이 1900년에 英國에서 태어나 78歲를 一期로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이다.

해로드는 生涯를 옥스포드와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1919年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옥스포드大學校의 뉴·칼리지(New College)에 입학한 후 古典, 哲學 및 歷史를 공부했고 처음에는 古典研究(그 당시는 'Greats'라 하였음)에서 最優等, 일년 뒤에는 近代史研究에서 역시 卒業試驗의 最優等을 차지하였다. 졸업 후 즉시 同校에서 가장 큰 크라이스트·처치(Christ Church)大學에서 哲學, 政治 및 經濟學의 合인 'Modern Greats'를 講義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옥스포드에서는 經濟學을 주요과목으로 포함하는 優等卒業試驗(Honour)이 없었고 해로드가 卒業한 다음 해인 1923年(英國의 大學學部課程은 3年임)에 이런 制度가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哲學, 政治 및 經濟學의 頭文字를 따서 P.P.E.라하여 가장 인기있고 전망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講師로 임명되었을 때만해도 그는 經濟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1922~23年의 2學期 동안 케임브리지大學校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로 가 케인즈 밑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고 이것이 케인즈와 平生交遊하는 인연의 시발점이 되었다. 每週 케인즈에게 論文을 제출하고 個人的 指導를 받았으며 케임브리지의 滯在期間이 불과 2學期 동안이었지만 이 사이에 케인즈를 위시한 케임브리지·맨과의 접촉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그의 주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1) *Induction, Growth and Trade, Essays in Honour of Sir Roy Harrod*, edited by W. A. Eltis, M. F. G. Scott and J. N. Wolfe, Clarendon Press, Oxford, 1970 參照.

生の 研究方向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었다. 1924年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처어치大學에 되돌아와 1967年 退職할 때까지 45年間을 계속 同校의 돈(don, head란 뜻도 있으나 여기서는 보통 fellow 또는 先生 정도로 쓰여지고 있음)인 스투우던트(student, 동고 독특한 제도로서 약간 어색한 名稱임)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는 正教授도 아닌 이 職에 평생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돈이란 學生에게 人格, 研究의 正確性과 自制力의 基準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學生으로 하여금 眞理를 探究하는데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職責에 충신하였으며 이를 통해 크라이스트·처어치大學의 傳統樹立과 名譽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20代에 이례적으로 돈이 된 이후 大學人(college man)으로서 또 옥스포드人(Oxford man)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센서(censor)의 자격으로 大學의 주요 委員會에 빠진 적이 없었고 學生의 入學이나 身分, 活動에 대해서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학생을 위한 모임에도 즐거이 참석하였으며 집으로도 불려 討論하기를 좋아하였다. 教授의 후계자이자 좌담장인 Senior Common Room은 知性的인 對話가 구족하다고 늘 불평하면서도 學生主權의 모임에는 즐거이 참여하였다. 그의 性格은 知的이며 초기에는 자유분방하였고 High Table(대학 식당내에 있는 教授用食卓으로서 學生用食卓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學長이 음식을 들기 시작해야 나머지 교수, 학생의 순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古風의 의식을 따르고 있음)에서 재치있고 짤막한 연설을 하기 좋아하였다. 이런 모임에서는 언제나 대화의 중심을 이루어 나갔으며 지루하지 않게 유쾌한 분위기를 잘 조성하였다.

그는 大學內에서 Curator of Common Room의 자격으로 財産管理까지도 맡는 성의를 잃지 않았으며 校內政治(university politic)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의 정치적 20代에는 政治적으로 自由黨을 지지, 유세까지 하였으며 急進的이고 過激한 論調로 이들을 지지하였고 社會主義支持者들의 모임인 Oxford Pink Lunch Club에도 가입하고 있었다. 29才의 젊은 나이로 Hdbdomadol委員으로 선출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지금까지도 唯一한 例外로 넘히고 있다. 그러나 히틀러의 대두와 經濟大恐慌은 해로드로 하여금 自由的인 路線에 회의를 갖게 하였으며 30代를 거쳐 40代末에는 保守黨에 입당하게 되었다. 한때 自由黨의 在野內閣에까지 참여했던 해로드로선 중대한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해로드는 政治人들과도 많이 交友하였으며 *The Times*, *The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등 여러 新聞 및 雜誌에도 寄稿하는 現實的인 감각을 잃지 않았다. 언제나 大學人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政治·社會에의 現實參與度를 깊이 展開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政府 특히 처어칠이나 로이드·조

오지 行政府 당시 統計顧問으로서 또 戰時 및 戰後經濟政策에 깊이 관여하였고 戰後에는 UN의 雇傭과 經濟安定을 위한 專門委員會 委員이나 IMF의 經濟顧問으로도 활약하였다.

1938年 노총각으로 크레즈웰(Wilhelmina Creswell)과 결혼하였으며 노오포크(Norfolk)에 있는 부인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녀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nine to five mentality’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저택에서 종종 파티를 열어 친구와 학생들을 불렀으며 放學中에는 집에 기거하였으나 學期中에는 크라이스트·치어치의 寄宿舍에서 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生涯는 옥스포드와 떨어져 存在할 수 없었으나, 한편 케임브리지의 케인즈와도 떨어져 存在할 수 없었다. 1922년부터 2學期 동안 케인즈 밑에서 經濟學을 修學한 것은 앞서 言及하였지만 그 이후 케인즈의 「참된 弟子」로서 平生을 다하였다 할 수 있다. 케인즈의 死後, 헤로드는 케인즈의 동생, 제프리·케인즈(Geoffrey Keynes) 博士로부터 『케인즈傳』(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의 執筆을 의뢰받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交遊의 깊이를 示唆하는 것이며 그 당시 케임브리지인이 옥스포드인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면 더욱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冊에는 케인즈에 대한 헤로드의 尊敬의 念이 넘쳐 흐르고 있고 傳記物로서나 하나의 創作 品으로서도 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나는 케인즈의 참된 弟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헤로드는 케인즈의 經濟學 및 思想을 한층 깊이 理解하면서 이를 發展시키는데 노력하여 왔다. 그의 學術的 및 實際的 活動은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多方面에 걸쳐 있으며 그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케인즈의 그것과 많은 類似性을 지니고 있다.

헤로드의 經濟理論은 케인즈理論의 一般化 및 動態化에 있었고, 社會活動에 있어서도 케인즈가 第1次 世界大戰後 저어널리즘에 진출하여 時論을 쓰게 된 것과 같이 헤로드는 第2次 世界大戰後 英國 및 世界經濟의 動向을 끊임없이 觀察하고 많은 時論을 써낸 바 있다. 더우기 케인즈가 論理學分野에서 『確率論』(A Treatise on Probability)이란 著書를 갖고 있는데 呼應이라도 하듯이 헤로드도 같은 분야에서 『歸納的 論理의 基礎』라고 表題한 冊子를 發刊하고 있다. 實際的 活動面에서는 케인즈가 第1次世界大戰 直前부터 戰後에 걸쳐 財務省에 관계하여 戰時的 食糧問題나 戰後處理의 問題에서 활약하고 또 IMF創設에 크게 공헌했는데 비하여 헤로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國內外에서 經濟顧問으로서 크게 활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헤로드는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學術的인 研究의 成果를 실제적 活動과 병행해서 產出해 내고 있었으며 그의 理論도 따라서 經驗에 뒷받침된 現實性을 항상 띄고 있었다. 헤

로드는 케인즈의 方法을 본보기로 하고 있는 듯한 感마저 풍기고 있으며 이러한 類似性은 그의 예지와 발랄함이 케인즈와 닮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學術活動의 幅

해로드의 知性과 多樣性은 그의 學術活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해로드의 學問的 業績을 서술하기 前에 年度別로 어떤 作品을 만들어 내었는가를 먼저 정리해 보자.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그의 관심분야와 연구활동의 幅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經濟學研究는 1969년까지만 따진다해도

單 行 本 : 24卷

著書에의 寄稿 : 50篇

論 文 : 344篇

時 論(戰 前) : 13篇

其 他 : 多數

에 이르고 있으며 多忙한 生活 속에서 어떻게 이단한 數의 多作을 產出해낼 수 있었는지 현 기증이 날 정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테에 좀 더 구체적으로 經濟研究만 골라 年代別로 나열해 보기로 한다.

1927年 : "An Early Exposition of 'Final Utility'," *Economic History*.

"Mr. Robertson's Views on Banking Policy," *Economica*.

1928年 : "Foreign Exchanges and Their Relation to Unemployment," in *Unemployment: Its Cause and Cure*.

1930年 : "Note on Supply," *Economic Journal (EJ)*.

"Progressive Taxation and Equal Sacrifice," *EJ*.

1931年 : "The Law of Decreasing Costs," *EJ*.

1932年 : "Decreasing Costs: An Addendum," *EJ*.

"Monetary Policy," *The Economist*.

"Restoration of Prices: Fresh Money for Spending," *The Times*.

"The Dilemma in the Economy; How to Restore Demand: A Case for Limited Reflation," *The Times*.

1933年 :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rrency and Central Banking," in *What Everybody Wants to Know about*

Money.

“A Further Note on Decreasing Costs,” *EJ.*

“More Money in Circulation,” *The Times.*

“Trade of the World: British Policy of Expansion,” *The Times.*

1934年: “Professor Pigou’s *Theory of Unemployment*,” *EJ.*

“Doctrines of Imperfect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The Equilibrium of Duopoly,” *EJ.*

“The Expansion of Credit in an Advancing Community,” *Economica.*

“Rejoinder to Mr. Robertson,” *Economica.*

1935年: “Monetary Equilibrium and the Price Level in a Progressive Economy: Rejoinder to Drs. Haberler and Bode,” *Economica.*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Meeting of Economists.

1936年: *The Trade Cycle: An Essay*, Oxford.

Utilitarianism Revised, Mind.

“Another Fundamental Objection to *Laissez-Faire*,” *EJ.*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Trade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37年: “Mr. Keynes and Traditional Theory,” *Econometrica.*

“Studies in the Theory of Economic Expansion,” *Zeitschrift für National-ökonomie.*

1938年: “The Future of Gold,” *The Banker.*

“Population and the Future,” *The Political Quarterly.*

“Scope and Method of Economics,” *EJ.*

“Banking and Trade Recession: The Case for Monetary Reflation,” *The Times.*

“Expanding the Credit Base,” *The Economist.*

“Credit, Growth and Trade,” *The Financial Times.*

1939年: *Vers une Théorie Dynamique*, Paris.

“Modern Population Trends,”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MSESS).*

“Population Trends and Problems,” *Lloyds Bank Review.*

“Price and Cost in Entrepreneurs’ Policy,” *Oxford Economic Papers.*

“An Essay in Dynamic Theory,” *EJ*.

“Value and Capital by J. R. Hicks,” *EJ*.

“The Conscription of Wealth,” *Political Quarterly*.

“Expenditure on Defence: Good out of Evil,” *The Times*.

1940年 : *Peace Aims and Economics*, Horizon.

“The Population Problem: A Rejoinder,” *MSESS*.

1942年 : *Contribution in Consumers' Cooperation in Great Britain: An Examination of the British Cooperative Movement*.

1943年 : “Britain's Future Population,” *Oxford Pamphlets*.

“Full Employment and Security of Livelihood,” *EJ*.

“National Economic Policy,” *The Times*.

以上과 같이 進行되어 오던 해로드의 學術活動은 이후 더욱 박차를 가하여 單行本만 해도 한 해 한 권 또는 두 권씩 발간하였으며, 이 중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Towards a Dynamic Economics: Some Recent Developments of Economic Theory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y, Macmillan Co. Ltd., 1948.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Macmillan Co. Ltd., 1951.

The Pound Sterling, Princeton University, 1952

The Dollar, Macmillan Co. Ltd., 1953.

Plan to Increase International Monetary Liquidity, European League for Economic Cooperation, 1964.

Reforming the World's Money, Macmillan Co. Ltd., 1965.

Toward a New Economic Polic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7.

가 있다. 著書에의 寄稿에는 한 해 平均 1篇 정도가 되나 많을 때는 5篇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분야도 多樣하여 國際收支, 國際通貨, 原子力, 國防, 인플레이션, 動態理論, 貯蓄, 貨幣, 不完全競爭, 成長理論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專門經濟誌에의 寄稿은 더욱 많으며 분야도 광범위하기 그지없고 저명지에 실린 論文만해도 1946年 7篇, 1947年 3篇, 1948年 6篇, 1949年 5篇, 1950年 9篇, 1951年 11篇, 1952年 11篇, 1953年 12篇, 1954年 10篇, 1955年 17篇, 1956年 19篇, 1957年 20篇, 1958年 23篇, 1959年 24篇, 1960年 16篇, 1961年 17篇, 1962年 20篇, 1963年 14篇, 1964年 11篇, 1965年 11篇, 1966年 8篇, 1967年 11篇, 1968年 9篇, 1969年 7篇을 헤아리고 있고, 연구분야도 價格彈力性, 雇傭, 利子,

經濟協力, 國際通貨, 消費, 不況, 豫測, 景氣循環, 貨幣, 國際收支, 貿易, 國有化, 援助, 政府干涉, 인플레이션, 共同市場, 世界經濟, 社會主義, 國內外投資, 動態理論, 金, 信用創造, 英國經濟, 純粹理論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넓게 전개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 걸쳐 單行本과 論文, 時評을 실세없이 쓴 해로드에 있어서도 50대가 전성기였으며 이때 좋은 글과 많은 作品이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창 글을 써내려갈 때는 1個月에 2篇의 論文이 나올 정도였고 同時에 單行本과 時評도 집필하였으며 大學內에서의 職務도 누구 못지 않게 활발히 展開하고 있었다.

以上과 같이 현판할 정도로 활약한 해로드의 經濟學 중에서 後世經濟學에 남겨놓을 수 있는 紀念物이 많았는데 이를 要約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III. 初期의 業績⁽²⁾

해로드의 學問的 業績은 두어니해도 그의 經濟動學理論이 될 것이다. 現代成長理論의 기초가 된 이 공헌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업적이 흐릿해질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밖에도 독창적인 일을 수없이 많이 하였는데, 經濟動學에 관한 업적에 들어가기 전에 그중 主要한 것을 年代順으로 살펴봄도 그리 無益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케임브리지大學에서의 자극적인 研究期間을 끝마친 후 母校로 돌아온 해로드는 大學의 職務에 多忙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28歲때 「總需要의 増分」(Increment of Aggregate Demand)이란 짧은 論文을 完成하였다. 이 글은 지금 로빈슨夫人과 체임벌린에게 오리지널리티가 귀착되고 있는 不完全競爭 혹은 獨占的競爭에 있어서의 「限界收入曲線」의 概念에 관한 것이었다. 이 論文에 관해서는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해로드는 이 論文을 『에코노믹·저어널』에 投稿했는데, 當時 同誌의 編輯者인 케인즈가 이 글을 早熟한 天才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프랭크·람지(Frank Ramsey)에게 보인 결과, 람지는 異議를 표명하였었다. 그후 해로드는 람지와 이 문제를 討論하였고 람지는 自說을 撤回하기에 이르렀다. 論文은 再提出되고 비로서 1930년에 「供給에 관한 覺書」(Notes on Supply)라는 題目으로 발표되었다. 만일 公刊이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經濟學에서 누구에게나 周知되고 있는 이 分析用具의 發見者의 이름이 그의 것으로 되었으리라는 것이 해로드 自身の 述懐이다.

不完全競爭理論에 관한 論文은 이밖에도 몇 편 더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만한 것은 그가 제일 먼저 景氣循環理論에 있어 不完全競爭理論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認知하고

(2) 足立黃之, 「R. F. 해로드」, 『세미나 經濟學教室: 現代的 經濟學』, 日本評論社, 1976 參照.

있었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構想이 후에 그의 著書『景氣循環論』에서 結實되었다.

한편 不完全競爭理論이라면 옥스포드大學의 調查그룹에 의해 행해진 企業의 生産物價格과 數量의 決定에 관한 行動樣式的 企業인터뷰가 有名한데 해로드는 처음부터 이 그룹의 有力한 멤버였으며 2代委員長을 역임한 바 있었다. 호우르와 힘치의 이름으로된 「풀·코스트原理」도 이 調查의 成果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해로드는 이와 같은 實地調查를 통해서 經濟學에 있어서의 事實觀察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이 基本的 認識이 그의 經濟學體系의 하나의 底流를 이루고 있었다.

1933년, 그는 處女作『國際經濟學』을 刊行하였다. 이것은 우연히 같은 해에 刊行된 하아버리와 울런의 著書와 함께 國際經濟理論의 近代化에 劃期的인 功勳을 하였다. 이 著書가 1939년에 改訂되었을 때 해로드는 케인즈의 封鎖體系에 있어서의 乘數理論을 開放體系로 展開하여 이른바 「外國貿易乘數의 原理」를 提示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케인즈의 有效需要理論을 國際貿易分野에 처음으로 適用한 중요한 貢獻이었다.

1936년 해로드는 『景氣循環論』을 著述하였다. 1929년에 시작된 世界恐慌은 經濟學의 根本的 再檢討에 직면하여 케임브리지에서는 케인즈가 리자드·카안이나 존·로빈슨 등의 協力아래 『一般理論』을 完成하는 중이었다. 해로도 1935년에 그 校正刷를 케인즈로부터 받았으며 편지를 통해 격렬한 批判·反批判을 주고 받았다.

『景氣循環論』이 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投資需要와 社會의 消費性向과 一般所得水準 사이의 相關關係를 밝힌 케인즈의 理論, 즉 乘數理論은 이 책에 全面的으로 利用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投資需要의 絕對水準이 消費需要의 增加率에 依存하고 있다는 즉 그가 「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관계를 새로이 도입해서 景氣循環의 新理論을 창출했었다. 오늘날의 用語로 말하면 乘數理論과 加速度原理와의 相互作用에 입각한 循環理論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理論을 動學化해 가는 過程에서 해로드 이외의 몇몇의 論者에 의해서도 약간 다른 형태로 提示되긴 하였으나 해로드 自身도 辯護하고 있듯이, 이 著作은 『一般理論』과 같은 해인 1936년에 出版된 것이므로 해로드의 理論이 이 線에 따른 최초의 企圖라 할 수 있다.

다만 해로드의 理論은 완벽한 數學的 모델로 提示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正當한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著者에 의해서도 言及되는 일이 적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해로드 自身은 數個의 파라미터에 의해 構成되는 數學的 循環모델이 景氣循環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에 特定한 값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반하여 그 자신의 理論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理論으로서의 一般性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주목할 점은 不完全競爭理論에 기초를 두는 價値의 理論을 景氣循環理論에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經驗的 觀察에서 賃金·物價·利潤은 好況期에 다같이 上昇하며 沈滯期에는 下落하고 그리고 그들의 變動幅은 賃金은 적고 物價는 그것을 上廻하며 그리고 利潤은 더욱 크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說明하기 위해서 그는 不完全競爭理論을 援用하여 究極的인 說明原理를 「需要彈性性遞減의 法則」——所得의 增加와 함께 需要의 價格彈性性이 低下하는 것——에서 찾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해로드의 理論은 景氣循環에 있어서의 實物과 價格의 兩面에 있어서의 特殊現象을 統一的으로 說明하려고 하는 것이며 포스트·케인지안에 따른 實物面에만 기술어진 循環모델에는 볼 수 없는 흥미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이 著書에 있어 好況과 沈滯가 持續的 進歩(steady advance)에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는 離反으로 포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靜學的 均衡에 대신하는 動學的 均衡의 概念이 이미 이 著書에 提示되어 있었으며 이 아이디어가 후의 動學理論의 定式化로 발전되어가고 있었다. 『景氣循環論』의 讀者는 現實의 복잡한 循環現象 중에서 서서히 基本的 說明要因을 抽出해가는 著者의 思考過程의 一端을 흥미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루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敘述方法은 오히려 새로운 分野를 開拓한 獨창적인 작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IV. 動態經濟學의 展開

『景氣循環論』은 해로드가 잇달아 動學理論에 관한 論文이나 著書에서 展開해간 아이디어의 상당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有名한 「動學的 基本方程式」을 定式化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1939년의 『에코노믹·저어널』에 掲載된 「動學理論에 관한 一考察」(An Essay in Dynamic Theory)에서 처음으로 提示되었고, 더우기 1948년에 刊行된 『動學經濟學』(Towards a Dynamic Economics)에서 한층 더 상세하게 展開되어 갔다. 이것이 第二次 世界大戰後 經濟學界의 中心的 課題가 된 長期動態理論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아담·스미드나 데이비드·리카아도 등의 初期 古典派經濟學이 動學的인 要素를 多分히 함유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멩거, 제본스, 왈라스에 의한 이른바 限界革命 이후 經濟學의 중심과제는 價値 및 價格의 決定이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限界原理의 適用에 의한 精緻한 理論이 完成되어 가기는 했으나 動學的인 문제에서는 관심이 빛나

는 결과를 과장하였다. 靜學的 均衡分析이라 부르는 이 分野는 英國에서는 마아샬에 의해 集大成되었으며 해로드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무렵에는 「그(마아샬)가 경제학의 一般原理를 完成했기 때문에 다음 世代的 經濟學者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있다고 하면 一般原理를 구체적 케이스에 適用하는 努力을 하거나 經濟의 個別的 部分的 記述的 研究를 행하는 일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케임브리지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原理는 靜態的인 假定때문에 現實과 離反되며 內容없는 形式主義에 그친다는 동렬한 批判을 면치 못하였다. 坎라팜의 「經濟學的 빈 箱子」(Of Empty Economic Boxes)라고 하는 論文은 이와 같은 批判의 하나였다. 또한 해로드가 케인즈 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마아샬의 『經濟學原理』에 대하여 케인즈가 「자네는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너것은 텅 빈 책이라네」하고 말했다는 回想은 지금도 口傳되어 오고 있는 有名한 에피소드이다.

케인즈의 『一般理論』은 經濟學的 이와 같은 無內容의 形式主義를 打破하고 現實의 問題——失業의 原因——를 論하는 것을 可能하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諸資源의 存在量이나 技術知識을 一定으로 한 短期理論에 멈춰 있고 여전히 靜學理論에 지나지 않는다. 케인즈의 『一般理論』에서 전개된 問題를 古典派가 對象으로 한 經濟成長 및 資本蓄積의 問題와 결합해서 動學理論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上述한 해로드의 論文 및 著書였다 할 수 있다. 그의 動學理論의 내용은 이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해로드가 밝힌 經濟體系의 動態的 運動이 단순한 動學的 基本方程式에 의해 解明되었다는 점이 적 흥미롭다. 해로드의 基本方程式은 로빈슨, 칸도아 등의 케인지안 經濟學者 및 솔로우, 스완, 미이드 등의 新古典派 經濟學者에 의해 여러 方向으로 展開되어 갔음은 이미 周知하는 바와 같고 成長論에 관한 論文이나 著書도 거의 헤아릴 수 없을만큼 登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成長論의 展開過程 중 케인지안과 新古典派 사이에 격렬한 論爭이 일어났고, 또한 제각기 內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見解의 차이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해로드의 基本方程式 그 자체는 어느 편의 理論에 대해서도 格格으로서 共通分母的 存在가 되어 왔음은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해로드動學的 基本方程式의 一般性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動學理論에 관한 해로드의 最初의 論文은 「動學的 基本公理」를 찾는 것을 目的으로 했다. 動學은 우선 基本公理를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 後의 著作에 있어 해로드가 언제나 되풀이해서 強調하고 있는 점이다. 微視靜學理論은 갖가지 缺陷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需要・供給의 法則」이라는 基本公理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動學理論은 그에 匹敵하는 基本公理를 아직도 開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主張이었다. 해로드 以後

의 成長理論의 展開는 無數한 論文이나 著書를 產出했지만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共通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成果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수많이 등장했던 이른바 「모델」은 해로드가 말하는 基本公理 혹은 一般의 命題를 追求하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假定에서 結論을 이끌어내는 推論의 方法에 많은 힘을 기울여온 느낌이 짙다. 假定의 가능한 配合에 따라 거의 헤아릴 수 없다고 할만한 「모델」이 만들어져 왔으나 그것들에서 導出된 結論이 現實世界에 대해 무엇을 밝혔으며, 經濟政策의 立案에 어떻게 관계되어 왔는가는 아직도 의문이 되고 있다. 해로드는 近著에서 다음과 같이 動學理論의 發展을 위한 經濟學者의 努力을 촉구하고 있다.

「벌써 30여년 전부터, 나의 단순한 方程式——數學에서는 單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美德으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이 經濟學者에게 자극을 주어 既存의 靜學的 公理와 다른 動學的 公理의 廣大한 體系를 開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나 아직 전연 實現되지 않고 있다.」

V. 動學理論의 應用과 經濟政策

해로드는 經濟時事評論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의 動學理論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었다. 時事評論에 관해서 해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경제학의 學問的 側面에만 종사하여 왔고 그 사이 時事問題에 대해서는 自身の 마음 속에서 批判하든가 혹은 기껏해야 친구들 사이에서——필요가 있다면 빈정대는 微笑를 띠면서——나의 論評을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었다. 그러나 확실히 이것은 비겁한 태도였다. 실령 誤謬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現代史의 해석에 공헌하는 것이 나의 義務인 것으로 생각한다.」

現代史의 解釋——해로드는 時事評論을 쓰는 意義의 하나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歷史家에 있어서는 個個事實의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無意味하기 때문에 歷史는 필연적으로 選擇, 一般化 및 解釋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變化無窮한 그때그때의 사건에 관하여 그 時點에 몸을 두고 있는 者의 立場에서 하나의 해석을 부여한다는 것은 장래의 歷史家들의 올바른 歷史解釋에 대해 有益한 情報를 提供할 것이라는 것이 해로드의 主張이었다. 해로드가 學生時代に 歷史를 專攻한 사실을 돌이켜 생각하면 이와 같은 問題意識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現實의 문제는 그에게는 항상 現代史의 한 토막으로 받아들여 놓고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時事評論을 쓸 경우의 자세에 대해서 해로드는 「그때그때의 사건을 動學理論——설령 그것이 初步的인 것이라고 하더라도——에 비추어 檢討한다면 貴重한 教訓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經濟上의 現實的인 사건에 관한 우리들의 理解力을 풍부히 한 經濟學上의 革命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하나는 케인즈革命이었고 둘째는 動學理論이 靜學理論에 의해 바뀐 것을 들고 있다. 그의 時事評論에 관한 한 著書에 『應用動態經濟學論集』이라는 副題가 붙어있는 것도 그의 現實分析의 姿勢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의 사건을 動學理論에 비추어 檢討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에 따르면 「하나는 그때그때의 사건을 미리 假定된 正常增加率에 비추어 吟味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現狀이 景氣循環의 어떠한 段階에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狀況도 과거 3,4년에 걸친 사태의 推移에 관련없이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政策勸告도 몇년인가 앞으로의 將來計劃에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學者가 過去의 事件에 대해 재빠르게 評價를 加하려면 흔히 誤謬를 범할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現實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的確한 事實判斷과 一貫된 政策勸告를 행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洞察力과 함께 經濟政策의 基本原理에 관한 確立된 立場이 필요한 것이다. 以下에서는 해로드의 방대한 時事評論에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그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의 政策上의 基本的 立場을 한두 가지 밝혀 두기로 한다.

經濟政策에 관한 해로드의 規範的 見解는 『貨幣』 및 『새로운 經濟政策』에 明快하게 論述되어 있다. 그는 우선 經濟政策의 主要目標은 一國의 潜在的 供給能力에 合致한 極大經濟成長이며 그밖의 모든 목표는 그에 從屬시켜야 할 것이라고 斷言하고 있다. 다만 經濟成長을 極大化한다는 것은 國民總生産(GNP)을 極大化하는 것과 同一視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그 理由로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餘暇는 하나의 經濟財로 취급해야 할 것이지만 GNP의 計算에는 考慮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極大經濟成長은 사람들이 欲求하는 財貨 및 서서비스의 極大成長을 뜻할 수 있는 것이지만 GNP의 成長은 物的財貨의 成長을 보다 강하게 反映하고 서서비스의 成長을 보다 약하게 反映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潜在的 供給能力에 合致된 極大經濟成長은 完全雇傭을 保證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完全雇傭의 목표와 矛盾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목표는 價格의 安定과 矛盾될지 모른다. 만일 相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로드는 極大經濟成長이 優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해로드의 見解에는 人間의 福祉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 完全雇傭의 維持

를 最優先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들면, 그는 失業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水準에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창하는 政策目標에 言及해서 다음과 같이 反論하고 있다.

「英國에 있어서의 失業의 1% 增加는 失業者에게 一定한 平均的인 數의 扶養家族이 있다는 것을 假定한다면, 5萬名의 사람들을 不安한 그리고 다분히 困窮한 상태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을 故意로 방치한다는 것은 道德的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前述한 主目標 및 그밖의 從屬의 目標를 어떠한 政策手段에 의해 달성하는가이다. 해로드는 우선 潛在的 供給能力에 合致된 極大成長이라는 목표는 貨幣政策 및 財政政策에 의해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物價安定이 이에 따라 손상될 때에는 極大成長이라는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 所得政策이라는 武器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 所得政策이 成功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인가 이에 대신할 手段이 발견되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때까지 이를 成功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所得政策이 成功할 경우에는 對外均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對外均衡에 관해서는 더우기 變動換率制의 採擇可能性 혹은 固定換率의 再調整의 可能性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換時勢의 調整은 그 作用이 늦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좋은 方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로드는 短期的 改善策으로서 輸入統制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해로드의 經濟政策은 第二次 世界大戰後의 英國의 經驗에 입각해서 形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戰後의 英國이 低成長과 物價上昇 및 對外收支의 不均衡으로 계속 고민하여 왔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해서 英國이 最近까지 취해왔던 政策은 주로 貨幣·財政政策에 의한 이른바 스톱·고오 政策(stop-go policy)이었다. 이 政策의 失敗를 돌이켜보고 해로드는 所得政策의 더욱 강력한 實施와 輸入統制政策을 提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輸入統制는 自國의 利益만을 주장하는 政策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해로드는 國際的인 觀點을 考慮해서 輸入統制는 다른 赤字國이나 發展途上國에는 適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制限을 두어야 하며 發展途上國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 나라의 製品을 工業國이 多量으로 輸入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VI. 經濟學의 方法論

해로드의 業績은 너무나도 多方面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全貌를 전하기 어려우며 더

우기 限定된 紙面으로서는 도저히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經濟學의 思考方式 또는 分析方法에 대해 약간 言及하고자 한다.

1938년 『에코노믹·저어널』에 해로드는 「經濟學의 範圍와 方法」(Scope and Method of Economics)이라는 論文을 掲載한 바 있다. 이것은 1938년의 英國學會(British Association)의 F部(經濟學과 統計學)에서 委員長의 자격으로 講演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라이오넬·로빈스에 의해서 提起된 個人間的 效用比較의 不可能性的 論議에 언급하면서 經濟學의 科學性이라는 데 대해 흥미 있는 見解를 開陳하고 있다. 英國의 傳統的 經濟學이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을 個人間的 效用比較可能性的 假定과 結合시키면서 分配上的 諸命題를 導出하고 있는 데 대해 로빈스가 가혹한 批判을 가한 것은 周知하는 바이나 이것이 新厚生經濟學의 出發點이 되었고 그후의 近代經濟學의 展開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해로드는 이 講演에서 「이 反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만일 經濟學 自身이 成熟된 精密科學이었다고 한다면」이라는 限定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신제로는 어느 限定된 범위 밖에서의 經濟學의 成果는 推測의 영역을 지나지 않은 사항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므로 經濟學자가 그와 같이 높은 標準을 設定하는 것은 아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個人間的 效用比較가 不可能하다고 하는 立場을 엄격히 固守한다면 2펜스가 百萬長者에 대해서 갖는 效用과 乞人に 대해서 갖는 效用이 어느 편이 높은가 하는 것마저 比較不可能하다는 것이다. 해로드는 차라리 常識에 입각해서 아주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否定할 수는 없다고 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로드가 經濟學을 思考해갈 때의 一種의 平衡感覺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이 講演에서 強調되고 있는 것은 經濟學에 있어서의 演繹的 方法의 限界와 事實觀察의 重要性이라 할 수 있다. 해로드는 需要法則을 例로 들면서 靜學理論에 있어서 演繹적으로 導出된 諸法則은 너무나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豫測力을 거의 갖지 않는다고指摘하면서 설명 一般性的의 정도가 떨어지더라도 事實觀察에 입각한 法則을 찾아내는 데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景氣循環에 관한 밋첼의 研究나 해로드 自身이 參加한 옥스포드 調査와 같은 種類의 作業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또하나 이 講演에 있어 해로드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動態經濟學分野의 開拓의 必要性이다. 이것은 그 이듬해(1939년)에 발표된 그의 動態經濟學에 관한 最初의 作業을 豫告하는 것이었다. 그는 結論에서 「우리들은 지금 靜學的 方程式體系의 領域으로부터의 解放을 뜻하는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劃期的 發展의 前夜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以上에서 要約한 헤로드의 方法論的 立場은 헤로드 自身이 自己의 經濟學의 展開過程에서 實踐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年前에 행해진 經濟學의 方法論에 관한 이 講演은 經濟學의 第二危機라고 말하는 오늘에도 여전히 新鮮한 反響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바로 動學理論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未發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6년에 맨체스터大學에서 행한 講義錄인 『새로운 經濟政策』 중에서 헤로드는 經濟理論의 現狀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오늘의 經濟理論이 다루는 範圍와 方法에 관해서 不安한 생각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 數理經濟學者의 研究의 學問的인 優秀性에는 敬意를 表할 必要가 있으나, 그와 同時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經濟——예를 들면 英國 自身의 經濟든 低開發國의 經濟든 어느 것이든 간에——의 움직임에 관한 나의 理解가 數理經濟學의 研究結果로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곤란한 立場에 지금 서 있다. 이것은 내가 數理經濟學者의 研究를 충분히 理解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며 그러한 研究에 충분한 時間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認定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經濟學이 상당한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數理經濟學上의 發見은 2,3年の 뒤떨어짐은 있을지라도 이른바 實務 經濟學者가 理解할 수 있는 말로 번역되어 經濟政策의 立案에 그것이 어떻게 관계하겠는지 밝혀졌어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한 후 헤로드는 經濟學의 進步는 오히려 「概念의 끊임없는 更新」에서 생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提言하고 있다.

回顧컨대 헤로드 자신의 理論上의 諸業績은 확실히 새로운 概念의 提起 혹은 既存概念의 更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限界收入」, 「外國貿易乘數」, 「리레이션」, 「成長率의 諸概念」——이들의 새로운 概念의 提起에 따라 그는 잇따라 새로운 分野를 開拓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오늘의 世界經濟는 失業, 인플레이션, 發展途上國의 문제 등 갖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헤로드는 「온갖 비참한 混亂속에 眞實의 罰……즉 經濟動學의 未發達이라고 하는 罪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VII. 結 言

헤로드의 학문적 공헌은 결코 위에 적기한 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國際經濟와 貨

幣, 인플레이션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國際經濟와 國際通貨만 해도 單行本으로 5卷 이상의 冊을 저술했고 수많은 論文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國際通貨制度의 改革을 위해 金價를 引上해야 한다는 그의 독특한 理論은 상당한 관심과 토의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었다. 貨幣理論이나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도 도도한 卓見을 피력하여 우리의 지혜에 보탬이 되었으나 이 역시 더 이상의 言及을 피하기로 한다.

筆者가 1968년에 맨체스터大學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만해도 68歲의 나이 때문인지 딱 병약하게 보였으나 그러나 理論의 展開나 主張의 辯護에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눈동자는 토론이 끝날 때까지 항상 빛나고 있었다. 學生會館에서 學生들이 招請한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옥스포드에서 올라와 반늦게까지 학생들과 어울려 談笑하던 모습은 지금도 새롭게 기억이 되새겨지고 있다. 그의 動態成長理論, 即 헤로드·도마 成長模型은 리카아도의 比較優位論과 같이 심플하면서도 일테간트한 理論으로서 마치 용광로와 같이 어떠한 반박도 용해해 버릴 수 있는 걸작이라 할 수 있으며 英國女王으로부터 卿의 작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헌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라면 언젠가는 한번은 經濟學者로서 最大의 榮光인 노벨經濟學賞까지 수상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마음까지 드는 것은 筆者 한 사람만의 감회가 아니라 생각된다. 그의 逝去를 哀悼하며 學問的 業績을 길이 상찬코자 한다.